

보도시점 (지 면) 10.16.(수) 조간
(인터넷) 10.15.(화) 12:00

9월 동행축제, 온·오프라인 채널 통해 최종 7천억원 이상 직접매출 달성

- 온라인기획전 등 온라인 6,024억원, 지역행사 판촉행사 등 오프라인 1,148억원
- 내수를 넘어 해외에서 첫 특별행사 개최, 소비자 혜택을 더욱 강화하는 등 노력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강해수)에 따르면 중소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9월 동행축제(8.28~9.28)가 32일간 온·오프라인 직접매출 7,172억원을 기록하는 등 총 매출 2조 4,284억원을 달성하며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기획전,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 6,024억원과 지역행사 판촉행사 등 오프라인 매출 1,148억원 등 온·오프라인 매출이 7,17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아울러 온누리상품권도 1조 3,920억원이 판매되는 등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이번 9월 동행축제는 그간 국내에서만 개최했던 개막행사를 최초로 해외(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하고, 현지 수출상담회 및 팝업스토어, 소공인 전용매장 개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등 동행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확장하였으며,

동행축제 기간, 외식 및 장보기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사와의 협업을 확대하여 백년가게(BC·농협카드), 전통시장·상점가(신한·국민)에서 다양한 할인과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역축제와 전통시장 야시장, 골목상권과 연계한 소상공인·전통시장 판촉전 행사를 전년보다 확대('23.9월 90곳 → '24.9월 98곳)하고, 대형 유통사와의 상생기획전을 2배로 확대('23.9월 6곳 → '24.9월 12곳)하는 등 지역경제와 전통시장·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축제의 열기를 이어갔다.

다양한 솟품 영상을 활용한 이색홍보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전국 34개 야(夜)시장의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모아서 소개한 ‘별별야시장’ 쇼츠(189만회)와 청계광장 판매전에서 진행한 동행 양궁 이벤트로 엮은 ‘내 꿈은 양궁선수’ 쇼츠(123만회) 등 13편의 쇼츠영상들이 총 954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동행축제를 알렸으며,

이 외에도 52명의 청년서포터즈와 K-글로벌특과원들이 각종 지역행사 정보와 할인혜택 등을 소개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앞장섰다.

동행축제에 참여한 동아식품(감자탕) 관계자는 “올해 처음 참여했는데, 기획전(G마켓·11번가)을 통해 전년 동월대비 약 50% 정도 매출이 향상되는 등 큰 도움이 되었다”며, “향후에도 대국민 소비촉진행사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동행축제의 첫 해외 특별행사에 함께 참여한 설랩(바디케어) 이주훈 대표는 “수출상담회를 통해 현지 바이어와 지속 협의 중으로, 연내 1천만원 상당의 계약을 진행할 것 같다”며, “매출 또한 전년동월 대비 약 50% 상승하여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였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9월 동행축제를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린다”라며, “동행축제가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의 판로 확대 뿐 아니라, 내수를 넘어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10월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10월 6일까지 연장한 기간에는 온·오프라인 1,140억원, 온누리상품권 680억원 등 총 1,820억원의 직·간접 매출을 기록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에 도움을 주었다.

담당 부서	내수활성화추진단	책임자	과 장	이정훈 (044-204-7240)
		담당자	사무관	박정은 (044-204-7266)
			주무관	정륜조 (044-204-7361)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과	책임자	과 장	신훈목 (032-450-1151)
담당자		주무관	한지연 (032-450-1140)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